

다문화위기에 대응하는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의 증진

- 국제비교와 영향요인 탐색 -

김준홍

본 연구는 국제비교를 통하여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의 영향요인을 도출해 보고자 했다. 국제비교와 한국 청소년의 분석을 위한 표본은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2009) 자료에서 구득하였다. 국제수준의 분석에서 한국 청소년은 다문화수용적 태도에 있어 38개국 중에서 21위로서 중하위권을 차지하였다. 이는 한국 청소년 다문화수용성의 취약성을 말해준다. 국가단위의 분석에서 다문화수용성이 청소년 사회적 자본 수준에 상관되고 있었다. 국내 청소년 대상의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에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국제적 이슈에 관한 부모와의 대화 빈도가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청소년이 국제비교를 통해 취약한 것으로 밝혀진 다문화 수용적 태도의 개선과 신장을 위하여 가정 내에서 부모를 통한 다문화교육이 긴요한 상황임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아울러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다문화수용성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문화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 내용을 진작시키는 공공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주제어: 청소년, 다문화 수용적 태도, 다문화 위기

1. 서론

최근 한국 체류 외국인이 1990년 약 5만 명에서 2010년 6월 현재 180개국 121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이 높은 비율로 늘면서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윤인진, 2008). 그렇게 되면서, 특히 문화적 준거에서 주류집단과 소수집단이라는 구분이 자연발생하고, 주류집단의 소수집단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태도 혹은 다문화수용성(multicultural receptivity)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여기서 다문화수용성은, 연구자 혹은 용어의 사용 주체에 따라 그 개념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다른 집단을 인정(recognition)하는 것, 문화권의 차이를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을 차별하지 않는 것, 상호 공존과 존중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황정미 외, 2007).

그런데 한국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은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일례로, 2007년 8월 10일 유엔 인종차별위원회(UNCERD: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가 한국사회의 순혈주의가 갖는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현대 한국사회의 다인종적 성격

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 이는 이른 바 다문화위기가 한국 사회에 닥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래 한국의 시민이자 노동자로서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가 국제수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이다(Schulz, *et al.*, 2010).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 주류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위기관리 차원에서 공공정책적 개입이 권장되면서도 청소년 정책의 일환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포섭(social inclusion) 정책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를 국제수준에서 살펴보고 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과 각국의 조사기관에서 표집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한국의 미래지향적 다문화 위기관리 정책을 지향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을 국제비교적 견지에서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민무숙 외, 2010).

그러한 국제비교를 도모하다 보면, 각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가 어떤 요인에 따라 변화하거나 영향을 받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Bogard, Sheinheit, & Clarke, 2008; Ravanera & Rajulton, 2010) 수준이 각국마다 차별화되며, 미래 시민으로서 선거참여와 다양한 사회정치적 참여가 기대되는 각국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과 역량으로서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각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와 상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학문적, 실천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근래까지 상대적으로 대다수의 논의들은 청소년보다는 사회전반과 성인 전반의 다문화 담론에 관한 고찰 및 정책에 관해서였다(곽정래·이준웅, 2009; 김인영 외, 2009; 김혜순, 2008; 윤인진, 2008).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공공정책적 처방을 제시하려면, 우선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위상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 연후에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론적·체계적·경험적으로 탐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원숙연,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 증진을 다문화정책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한국의 다문화 위기,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다문화는 많은 경우 위기를 초래한다. 2005년 프랑스 전역에서 일어난 무슬림의 폭동이나 2011년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반무슬림주의자 청년의 폭탄테러와 총기난동 사건은 매우 극적이고 극단적인 사

레이긴 하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가진 사회적 위험을 잘 보여준다. 다문화주의는 공공정책을 통한 집행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집단들 간의 사회적 갈등에 따른 통합의 위기를 내포할 수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의 관리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김정학, 2010).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공공정책은 항상 정책의 실패(policy failure)의 위기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영국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보수당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의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이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다문화 사회건설 실패 선언은 모두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염운옥, 2011).

다문화주의의 사회적 실험을 거친 유럽 전체에서 다문화의 위기가 유럽의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극우정당이 세력을 얻고 반이민자 정서의 확산이 다문화 위기를 반영한다면, 유럽은 이미 그러한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며 향후 EU의 이민정책이나 소수자 정책의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최진우, 2012). 이처럼 다문화 위기는 개별 국가의 국경선을 넘어 보다 큰 단위의 정치적 지형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 개념에는 이념과 실천이라는 두 가지 지향이 모두 녹아있다.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 인종적 다원주의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따라서 당시에 다문화주의는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에 대한 평등, 관용, 포용 등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이후 다문화주의의 개념은 점차 확장되었으며, 현재는 ‘여성문화, 소수파문화, 비서양문화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주변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는 것’ 또는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조시키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차이를 인정·존중하면서 공존하는 데 목적을 둔 이념적 지향’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이처럼 포괄적·중층적 의미를 갖는 다문화주의는 현실사회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문화를 바라보는 이론적 시각 등에 따라 다문화주의를 세분할 수도 있다. 크게는 자유주의적(liberal) 다문화주의와 공동체주의적(corporate) 다문화주의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에 급진적(radical) 다문화주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유의정 외, 2010).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Kymlicka, 1995)에서는 모든 개인이 보편적 권리와 자유를 지닌다고 본다. 따라서 다양한 소수집단이 그들의 문화적 권리를 확보하도록 장려하지만, 시민생활이나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나 언어, 그리고 사회관습 등을 우선시한다. 반면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Taylor, 1994)에서는 소수문화나 소수 종족집단의 요구와 권리를 주류사회의 문화 이상으로 중시한다.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를 유지할 때 사회에 더욱 잘 통합될 수 있고, 나아가 사회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별을 금지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수자들의 사회참여를 장려한다. 급진적 다문화주의(Young, 1990)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즉, 문화적 공존의 수준을 넘어서 소수 집단이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문화에 대한 상이한 입장은 문화적 적응과정을 다각도로 바라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편적인 인권 문화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사회에서는 소수 집단의 동조(assimilation)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문화적 본질주의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통합(integration)을 지향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자들은 급진적 다문화주의자들과는 물론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자들과도 상호 비판하는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가 인종 분리주의를 부추김으로써 국가적 단결과 통합을 저해한다고 비판한다. 반면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자들과 급진적 다문화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문화적 다양성을 그럴 듯하게 감춰버릴 뿐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은 대체로 어떤 이론적 관점을 따르고 있을까? 학계에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위의 이론적 관점들 가운데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가까운 소위 동화주의 관점이 주를 이룬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양문승·윤경희, 2011; 원숙연, 2011; 한승준, 2011).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순혈주의가 유지되면서 자국 중심주의적 국가정체성이 형성되었고(장임숙, 2011), 혈통주의와 단일민족에 대한 강한 신념이 내재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로 인해 이주민을 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데 소극적이며(민무숙 외, 2010), 이주민들의 한국사회로의 ‘흡수’ 내지 ‘동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¹⁾

이미 다문화상황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외국의 다문화정책 혹은 외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정책과 비교하면 이러한 한국적 특징은 더욱 부각된다. 물론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오랜 역사적 산물로서 국가와 지역별로 특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정책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다문화주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국가의 국민들의 경험으로부터 비교적 시각과 시사점을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이주민과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직업교육이나 문화이해 등을 돕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국민과 이주민간의 원활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주민을 대상으로 독일사회의 문화, 정치, 사회, 사법체계 등에 대한 사회통합교육과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문화간 이해증진과 이를 통한 공동체문화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청소년 대상의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호주주의 경우에도 ‘모두의 의무(responsibilities of all)’, ‘모두를 위한 이익(benefits for all)’을 다문화정책의 원칙으로 내세우며 다문화주의를 위해 모든 호주인의 관용과 시민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이태주·권숙인, 2007). 이러한 시민덕목과 의무를 아동·청소년기에서부터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나라들에서 청소년정책의 차이가 과연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 혹은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을까? 국가별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은 일정한 차이가 있는가? 사실 이 물음을 제기하기에 앞서 청소년의 입장에서 다문화 수용적 태도/다문화수용성에 대한 개념정의의 내릴 필요가 있다. 다문화수용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사실 다문화수용성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져온 서구에서도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명쾌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들이 서로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인정·존중하면서 상호 공존을 꾀하는 태도 등을

1) 이러한 평가의 밑바탕에는 우리사회에 다문화주의 자체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성찰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한건수, 2008). 심지어 일부 비판적인 학자들은 우리정부가 통치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주의’라는 포용적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이주민의 현실을 왜곡하고 그들을 주변화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오경석 외, 2007).

다문화수용성이라고 정의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져 왔으나(Hunter & Elias, 2000; 황정미 외, 2007), 여전히 학자들마다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개념규정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을 토론할 때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문화 간 감수성, 문화적 역량, 사회적 역량 등의 용어가 때로는 유사한 개념으로 동원·사용되는 등 용어 간 관계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김금미, 2010). 따라서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그 개념들이 기초하고 있는 보다 다양한 논의들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고찰하자면, 우선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차원에서의 다문화수용성은 타문화에 대한 지식,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소통 등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들로 이해된다(Chen & Starosta, 1997). 다문화 감수성 측면에서 다문화수용성을 설명할 때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개방적이면서도 유연한 태도를 강조한다(Bhawuk & Brislin, 1992).²⁾ 즉, 문화적 감수성이 향상되면 문화차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자기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공감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 이중 정체성 수준에 이르러 문화차이를 즐기게 된다는 것이다(박주희·정진경, 2008). 그리고 다문화수용성을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 역량 차원에서 설명하는 입장에 따르자면, 다문화수용성이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효과적 의사소통 능력,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Garcia, 1995). 특히, 다문화수용성 용어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곤 하는 문화적 역량은 문화적 감수성과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Chen & Starosta, 1997). 달리 말해, 문화적 역량 개념에는 공감, 유연성, 타문화에 대한 지식과 같은 다문화 감수성 측면과 언어 능력이나 듣기 기술과 같은 의사소통 역량이 포함된다. 그리고 다문화수용성을 사회적 역량 차원에서 설명하는 시도도 있는데(Gesten & Weissberg, 1986), 사회적 역량이란 의사소통 기술, 공유, 칭찬 등과 같은 사회적 기술과 함께 상대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문제해결 역량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개념적 논의들을 종합하여, 다문화수용성을 타문화에 대한 이해나 지식과 같은 인지적 측면, 개방성이나 존중과 같은 정서적 측면,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행동적 측면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문화 간 감수성, 문화적 역량, 사회적 역량 등을 일정 부분 포괄하거나 이들 개념들과 깊은 상관성을 갖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와 같은 실질적 개념의 전제 하에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의 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어떠한지 공신력 있는 국제적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 연구문제 1: 국제비교를 통하여 볼 때,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는 어떠한 수준인가?

다문화사회에서 요청되는 문화적 적응은 이를 소수집단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때보다 주류집단의

²⁾ 문화적 감수성의 요인으로 상호작용 참여, 문화차이 존중, 상호작용 신뢰, 상호작용 향유, 상호작용 경청 등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한다(Chen & Starosta, 1997).

다문화수용성의 증진이 함께 수반될 때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추론을 가지게 된다. 더욱이 다문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소수집단에 대한 일방적 지원정책은 자연스럽게 주류집단의 반감과 저항으로 이어짐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원숙연, 2011). 선행문헌에 상당한 공백이 있기는 하지만, 각국의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의 차이는 특히 주류사회를 구성하는 청소년의 역량이나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에 내재한 자원을 자산 내지 자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개개 시민의 역량이다(Bogard, Sheinheit, & Clarke, 2008). 이와 비슷하게 Portes(1998)도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 안에 배태 혹은 내재하여 존재하는 자원들을 심리적·행동적 차원의 투자 혹은 위험감수를 통하여 일종의 자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개인의 역량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을 사회참여 혹은 참여에의 의향 내지 기대로 규정한다. 참여행동은 인식적 사회적 자본(예컨대, 신뢰)은 아니지만, 구조적 사회적 자본으로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회적 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식적 네트워크 외에도 비교적 친숙한 이웃들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포함한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포함시킬 수 있다(Pichler & Wallace, 2007). 민주국가에서 시민들이 사회·정치 단체와 다양한 결사체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증강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으며, 많은 경우 그러한 참여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자본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Putnam, 2000).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때에 이와 같은 일종의 공식적 차원의 구조적 사회자본(네트워크, 멤버십, 참여 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응답자들에게 질문하게 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참여행동 대신에 성인기의 참여의향(의도)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할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참여는 관습적·현실적 제약에 직면하며 청소년기는 다양한 전통적, 저항적 참여행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연령집단으로 간주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ICCS(2009)의 조사대상자들이 평균적으로 중학교 2학년생들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나아가 성인기의 사회정치적 참여행동은 청소년기의 참여행동의도에 의해 잘 설명·예측될 수 있다. 다른 많은 행동영역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사회적, 정치적 참여행동은 그 의향 혹은 의도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De Cannière, *et. al.*, 2009). 심지어 참여의향은 실제 참여행동의 대리변수(proxy)로도 간주될 수 있다(Turchik & Gidycz, 2012). 이와 같은 논의의 토대 위에서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 연구문제 2: 국가수준에서 각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는 각국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성인기의 사회정치적 참여의향) 수준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가 공공정책에 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의 질문에 대해 답할 필요도 있다. 다문화 수용적 태도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공공정책의 실행에서 중재해야 하는 (다문화수용성에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우선 청소년 등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 연구가 앞서 있는 외국의 연구들을 정리

해 보자면, 개인의 다문화적 수용성을 포괄하는 문화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관되어 있는 요인으로는 연령(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용이)(Espenshade & Hempsted, 1996), 성별(여성일수록 문화적응 어려움)(Hood & Morris, 2000; Pantoja, 2006), 교육수준(교육수준 높을수록 문화적응 용이)(Hood & Morris, 2000)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노출 경험(노출이 많을수록 문화적응 용이)(Allport, 1979; Pettigrew, 1998), 이념적 지향(보수적일수록 문화적응 어려움)(Pantoja, *et al.*, 2001)이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선행적 영향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수집단에 속한 개인들이 얼마나 오래 문화적응 과정을 경험했는지가 문화적응 전략과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erry, 1997). 국내에서는 임도경·김창숙(2011)이 권위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외국인 주민에 대한 공포감을 다문화수용성의 영향요인으로 설정하고 실증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념 성향, 국내 외국인 교류 경험, 이주노동자로부터의 피해 경험 등을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요인으로 제시한 연구도 있다(윤인진·송영호, 2009). 최훈석 외(2008)는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인식수준과 대면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기여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외국방문 경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호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 등이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영향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송미영, 2009)도 있다. 이 밖에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선행변수를 측정, 분석한 연구(박혜숙·원미순, 2010)에서는 외국인 친구 유무, 독서량, 학업성취도, 자원봉사, 자기효능감 등이 다문화수용성의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바 있다.

다문화수용성을 다루는 선행연구에서 공백이 나타난 부분은 청소년 개인의 사회적 자본과 가족배경 요인(family backgrounds)이다. 사회적 자본이 다문화주의에 기여하는 바를 밝힌 연구들은 주로 이주민들과 같은 소수자들의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였다(김기홍, 2012; 윤석상, 2011). 주류사회를 포함하는 다문화 사회 전체의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주의 간 관계를 질적 자료를 통해 분석한 Takhar(2006)은 다문화주의와 사회적 자본 간의 긴장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계량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와 사회적 자본 간의 연계성을 밝히는 것은 선행문헌의 불일치나 공백이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문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가족배경이다. 가족내부의 부모의 역할과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삶의 만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Kovacheva, 2005; Leonard, 2005), 청소년의 교육성취와 사회문화적 태도, 예컨대 다문화 수용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Coleman, 1988). 이와 같은 가족요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양과 질로서(Sandefur, Meier, & Hernandez, 1999) 예컨대, 청소년의 부모의 생존과 동거가 그 기본을 형성한다. 그러나 부모가 생존해 있고 동거하더라도, 자녀의 학교 숙제를 봐 주지 않거나 자녀의 성취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경우, 혹은 자녀가 또래의 부정적 영향을 받아 부모의 양육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태도, 특히 다문화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수도 있다.

가족요인 중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다를 수 있으며, 청소년 자녀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다. 가족 내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대화하더라도 국내의 사회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과 국제적 이슈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다른 효과, 곧 다문화 수용적 태도에 상이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적 태도와 가족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희소하고 이를 시민교육 성과로서 여기는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강대현, 2009; 최종덕, 2007). 다문화적 시민교육이 상당 부분 교과교육, 학교교육을 넘어서는 영역에 속한 것이기에 특히 가족내부요인과의 연계성 속에서 이의 기회와 위기를 적절히 포착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에 토대하여, 첫째,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 더불어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지 여부, 둘째, 부모가 자녀와 함께 얼마만큼 국내 정치사회적 이슈에 관한 대화나 국제 이슈에 대한 대화를 하는지의 정도를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지표로 사용하여 이것들이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에 영향요인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생활이 차별화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국내 정치사회적 이슈에 관한 대화나 국제 이슈에 대한 대화중에서 어떤 이슈의 대화가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를 증진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을 통하여 획득된 지식을 한국의 다문화 위기 극복을 위하여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그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 연구문제 3: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는 개인의 사회적 자본(성인기의 사회정치적 참여 의향) 수준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가?
- 연구문제 4: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생활에서 시간을 함께 자녀와 함께 보내는 것이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5: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국내 사회정치이슈와 국제적 이슈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이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6: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소하여 주는 지식을 한국의 다문화 위기 극복을 위하여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장의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는 국제교육성취평가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의 2009년 국제시민교육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이하 ICCS) 자료이다. ICCS는 교육이 미래세대의 민주적 시민역량을 개발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시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수준의 조사이다. IEA는 2009년에 세계 38개국의 청소년(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제1차 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 7월에 그 국제비교 결과를 발표하였다(Schulz, *et al.*, 2010).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에 참여한 국가는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중남미의 38개국이고, 한국은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과 함께 아시아 국가군에 포함되어 있다.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ICCS의 공동주관기관으로서 2009년 조사에 참여하였고, 이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2011, 2012)’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2014년에 예정된 제2차 조사를 위한 조사체계 및 조사도구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1> ICCS(2009) 38개 조사 참가국

구분 (참여국 수)	조사 참여국가
아시아 (5)	한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유럽 (26)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사이프러스,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러시아,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히텐슈타인
오세아니아 (1)	뉴질랜드
중남미 (6)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합계 (38)

ICCS 조사대상 학생은 38개국 총 140,650명의 학교청소년이었다. ICCS(2009) 자료를 활용하여 각 개별국가에 속한 청소년의 응답으로부터 국가단위에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 변인과 사회적 자본변인(선거참여의향, 저항적 참여의향)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구체적 측정 및 계산에 관하여는 측정변인의 설명 시 후술하겠다.

2. 측정변인

국가별 다문화 수용적 태도와 사회적 자본(선거참여의향, 저항적 참여의향)은 ICCS(2009) 조사 자료의 개인수준의 응답을 국가별로 합산하고 평균값을 계산하여 산출되었다. 다문화 수용적 태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문화수용성과 국제결혼(자)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으로 측정되곤 하는데, 다문화 수용적 태도를 구성하는 이 두 가지 차원/영역은 한국의 맥락에서 특히 중시된다(장임숙, 2011). 본 연구에서 사용된 ICCS(2009) 조사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는 ‘이민자(immigrants)는 모국의 언어를 계속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민자의 자녀는 다른 사람들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몇 년 이상 정주해 온 이민자는 선거에서 투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민자는 모국의 관습과 라이프스타일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민자는 다른 모든 사람

들과 마찬가지로의 모든 권리를 가져야 한다.’의 다섯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그 응답은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순서를 역으로 코딩하여 분석에서 활용하였고 각 지표를 합산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다문화 수용적 태도라고 명명하였다. 측정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 값(Cronbach's α)은 국가별로 가장 작게는 .484(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크게는 .889(스웨덴)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³⁾ 다문화 수용적 태도 변인의 38개 국가별 신뢰도계수는 [부록]을 참조할 수 있다.

청소년이 성인기로 이행 후 가능한 형태의 합법적 사회정치적 참여는 대표적으로 전통적 선거참여와 저항적 참여가 있을 수 있다(민영·노성중, 2011; Schulz, *et. al.*, 2010). 선거참여의향의 측정을 위하여 지방선거에서 투표참여, 국가적 선거에서 투표참여, 그리고 투표 전에 후보에 관한 정보구득의 세 가지 종류의 사회정치적 참여의향에 관하여 청소년에게 물었다. ‘귀하가 성인이 되면,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 항목들에 얼마나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그 응답은 확실히 참여(1), 아마도 참여(2), 아마도 참여 않음(3), 확실히 참여 않음(4)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순서를 역으로 코딩하여 분석에서 활용하였고 각 지표를 합산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선거참여의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측정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 값(Cronbach's α)은 국가별로 가장 작게는 .694(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크게는 .902(칠레)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선거참여의향 변인의 38개 국가별 신뢰도계수는 [부록]을 참조할 수 있다.

저항적 참여의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문사에 편지보내기, 개인의견을 표현하는 배지를 달거나 티셔츠 입기, 선출직 공무원 접촉하기, 평화적 집회 참여하기, 진정서 서명 모으기, 상품불매하기의 여섯 가지 종류의 합법적 방식의 저항적·대안적 사회정치적 참여의향을 물었다. ‘귀하가 성인이 되면,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 항목들에 얼마나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그 응답은 확실히 참여(1), 아마도 참여(2), 아마도 참여 않음(3), 확실히 참여 않음(4)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순서를 역으로 코딩하여 분석에서 활용하였고 각 지표를 합산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저항적 참여의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측정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 값(Cronbach's α)은 국가별로 가장 작게는 .704(그리스)에서 가장 크게는 .855(한국)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저항적 참여의향 변인의 38개 국가별 신뢰도계수는 [부록]을 참조할 수 있다.

가족요인의 첫 번째 하위변인으로서, 부친과 모친이 각각 청소년 자녀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여부를 측정하였다(Bassani, 2006; Crosnoe, 2004).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이 부친/모친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지낸다고 대답하였으면, 예(1),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면, 아니오(0)라고 코딩하였다. 그리고 이를 각각 아버지의 가정생활, 어머니의 가정생활이라고 명명하였다.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자녀와

3) 인도네시아의 신뢰도 계수가 수용기준보다 낮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결과해석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신뢰도 계수 값이 수용기준보다 낮은 나라는 라트비아(.487)였다.

대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특히 가정 안에서의 소통과 애착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정치적·국제적 이슈에 관한 부모와 자녀 간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Israel et al., 2001). 따라서 개별 청소년에게 ‘귀하는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두 가지 활동, 첫째, 국내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모와의 이야기, 둘째,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한 부모와의 이야기 빈도를 대답하게 하였다. 응답의 선택지로서 전혀 하지 않음(1), 최소 한달에 한번(2), 최소 일주일에 한번(3), 거의 매일 혹은 매일(4)로 세분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부모와의 국내이슈 커뮤니케이션(대화)과 국제이슈 커뮤니케이션(대화)이라고 명명하였다. 가족내부 사회자본 변인의 하위변인들 간의 내적 일치도가 높지 않아 각각 개별문항을 사용하여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표 2> 주요 측정변인

측정변인 (문항 수)	문항	척도	신뢰도 계수
다문화 수용적 태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자는 모국의 언어를 계속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 · 이민자의 자녀는 다른 사람들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함 · 몇 년 이상 정주해 온 이민자는 선거에서 투표할 기회를 가져야 함 · 이민자는 모국의 관습과 라이프스타일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 · 이민자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의 모든 권리를 가져야 함 	4점 척도	.484 ~ .889
선거참여의향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에서 투표참여의향 · 국가적 선거에서 투표참여의향 · 투표 전에 후보에 관한 정보구득 의향 	4점 척도	.694 ~ .902
저항적 참여의향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에 편지보내기 · 개인의견을 표현하는 배지를 달거나 티셔츠 입기 · 선출직 공무원 접촉하기 · 평화적 집회 참여하기 · 진정서 서명 모으기 · 상품불매하기 	4점 척도	.704 ~ .855
아버지 가정생활 (1)	· 부친이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지내는지 여부	범주형(예/아니오)	-
어머니 가정생활 (1)	· 모친이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지내는지 여부	범주형(예/아니오)	-
부모와의 국내 이슈 커뮤니케이션 (1)	· 국내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부모와 자녀 간 대화 빈도	4점 척도	-
부모와의 국제 이슈 커뮤니케이션 (1)	·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부모와 자녀 간 대화 빈도	4점 척도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인 연령, 성별, 가정의 소장도서(권수), 학생의 기대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이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 가정의 소장도서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귀택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은 어느 정도입니까?'라고 응답자에게 질문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개 40권의 책이 책꽂이 한 칸에 꽂힙니다. 잡지, 신문, 만화책이나 교과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라는 부가 진술을 추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응답 범주를 0-10권(1), 11-25권(2), 25-100권(3), 101-200권(4), 201-500권(5), 501권 이상(6)으로 나누었다. 청소년이 가지는 기대교육수준의 측정을 위하여 '최종학교를 어느 수준까지 다닐 것으로 기대하십니까?'라고 청소년에게 질문하고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1), 전문대학 졸업(2),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3), 중학교 졸업(4), 중학교 중퇴(5)로 세분하여 유목을 제시한 후 응답하게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응답 후 순서를 역으로 코딩하여 기대교육수준이라 명명하고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부친 및 모친의 교육수준의 측정을 위하여 '귀하의 아버지(혹은 남성보호자)/어머니(혹은 여성보호자)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라고 청소년에게 질문하였다. 그에 대한 응답을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1), 전문대학 졸업(2),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3), 중학교 졸업(4), 초등학교 졸업(5), 초등학교 중퇴(6)로 세분하였다. 응답 후 순서를 역으로 코딩하여 부모 교육수준(최종 학력)이라 명명하고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3. 통계적 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와 추론을 토대로 하여 각국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거시적, 미시적 양적 자료에 대한 경험적·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의 국가 간 비교를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의 국제적 위상을 알 수 있다.

둘째, 거시적 변인인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와 사회적 자본(선거참여의향, 저항적 참여의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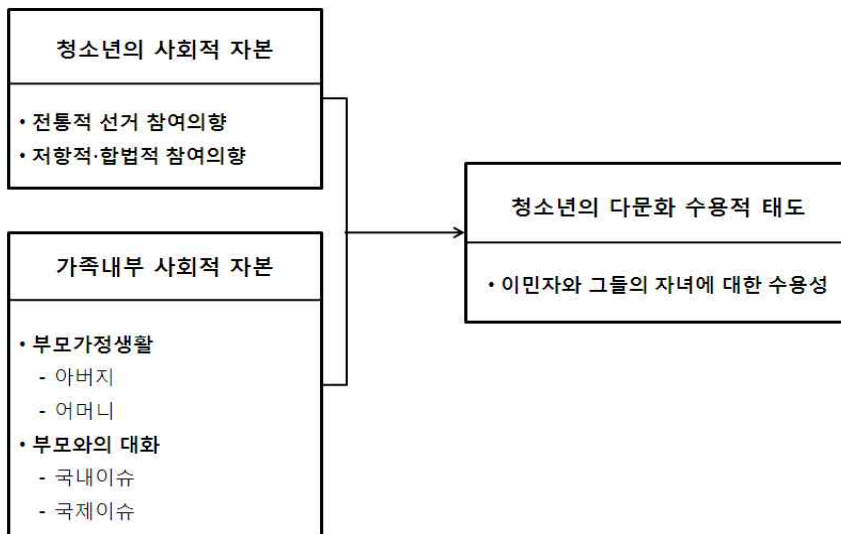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두 가지 분석은 국가단위의 거시적 자료에 대한 분석이다. 다음의 세 번째 분석은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수준의 분석이다. ICCS(2009) 자료 중에서 한국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표본자료를 선택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분석이 포함되며, 후자가 특히 중요하다. 우선 한국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기술통계분석으로써 제시하였으며,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가족내부 부모의 시간할애와 부모와 자녀간의 국내 및 국제 이슈에 대한 대화가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하고서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부수적으로 다음을 확인하였다. 변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도 검토하였다.

통계적 가설검정에서 사용되는 기준 값인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을 5%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통계패키지 IBM SPSS 20 version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적 방법과 연구 설계에 관하여 <표 3>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에의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그림 1>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수용적 태도를 중시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다문화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 준다.

<표 3> 연구 설계

변인 분류	분석 단위	결과변인	설명변인	통계적 방법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거시적 변인	국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참여의향 • 저항적 참여의향 	상관관계 분석	연구문제 2
미시적 변인	개인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가족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가정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 어머니 • 부모와의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이슈 - 국제 이슈 	다중회귀 분석	연구문제 3, 4, 5



<그림 1> 분석 틀: 다문화 위기에 대응하는 다문화 수용적 태도에의 영향요인

IV. 연구결과

1. 국가단위 분석

1) 기술통계 및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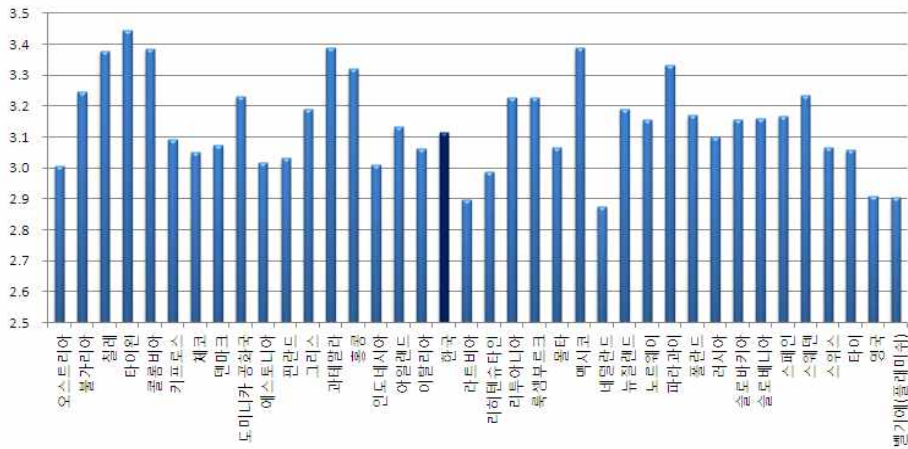
다음 <표 4>는 38개 국가와 성별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사례 수와 비율의 기술통계를 제시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표집 총 사례 수의 남녀 성비가 다소 불균등한 나라였다.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하고 참가국들은 대개 5천명 내외의 표본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표 4> ICCS(2009) 조사대상 청소년 사례 수

국가	합계	%	남학생	%	여학생	%
Austria	3385	2.4	1553	2.3	1637	2.3
Bulgaria	3257	2.3	1590	2.3	1642	2.3
Chile	5192	3.7	2510	3.6	2651	3.8
Chinese Taipei	5167	3.7	2670	3.9	2474	3.5
Colombia	6204	4.4	2877	4.2	3315	4.7
Cyprus	3194	2.3	1548	2.2	1540	2.2
Czech Republic	4630	3.3	2492	3.6	2128	3.0
Denmark	4508	3.2	2092	3.0	2271	3.2
Dominican Republic	4589	3.3	2053	3.0	2482	3.5
Estonia	2743	2.0	1345	1.9	1380	2.0
Finland	3307	2.4	1604	2.3	1692	2.4
Greece	3153	2.2	1538	2.2	1606	2.3
Guatemala	4002	2.8	2035	2.9	1955	2.8
Hong Kong	2902	2.1	1414	2.0	1376	2.0
Indonesia	5068	3.6	2365	3.4	2650	3.8
Ireland	3355	2.4	1720	2.5	1626	2.3
Italy	3366	2.4	1740	2.5	1612	2.3
Korea	5254	3.7	2968	4.3	2275	3.2
Latvia	2761	2.0	1329	1.9	1412	2.0
Liechtenstein	357	0.3	181	0.3	172	0.2
Lithuania	3902	2.8	1974	2.9	1918	2.7
Luxembourg	4852	3.4	2318	3.4	2477	3.5
Malta	2143	1.5	1126	1.6	1011	1.4
Mexico	6576	4.7	3142	4.6	3429	4.9
Netherlands	1964	1.4	901	1.3	1030	1.5
New Zealand	3979	2.8	1982	2.9	1950	2.8
Norway	3013	2.1	1458	2.1	1502	2.1
Paraguay	3399	2.4	1627	2.4	1771	2.5
Poland	3249	2.3	1605	2.3	1633	2.3
Russian Federation	4295	3.1	2144	3.1	2148	3.1
Slovak Republic	2970	2.1	1473	2.1	1493	2.1

Slovenia	3070	2.2	1528	2.2	1517	2.2
Spain	3309	2.4	1619	2.3	1663	2.4
Sweden	3464	2.5	1707	2.5	1716	2.4
Switzerland	2924	2.1	1450	2.1	1454	2.1
Thailand	5263	3.7	2433	3.5	2812	4.0
England	2916	2.1	1388	2.0	1496	2.1
Belgium (Flemish)	2968	2.1	1486	2.2	1465	2.1
합계	140650	100	68985	100	703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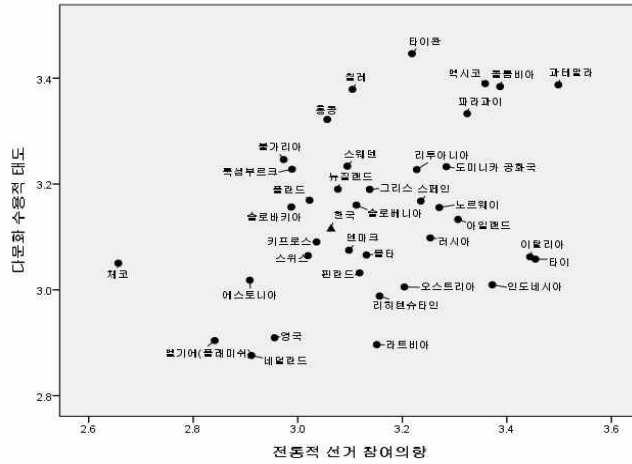
ICCS(2009) 조사에 참여한 38개국별로 청소년의 국가평균 다문화 수용적 태도 값을 비교한 그래프는 다음 <그림 2>과 같다. 한국 청소년은 다문화 수용적 태도 값은 3.11로서 38개국 중에서 2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청소년 평균은 3.17로서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는 평균에 미달하였다.



<그림 2>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의 국가 간 비교

2) 상관관계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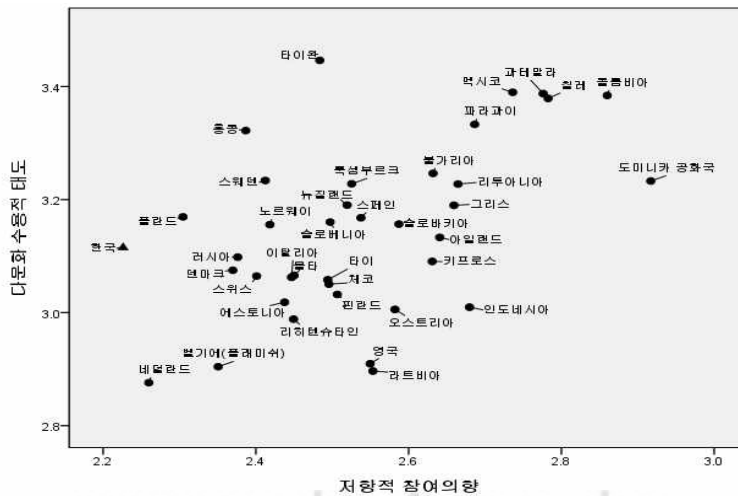
국제 수준에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와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간에는 정적 선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38개국에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양 변인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 값은 .387이었다(p=.016). 국가단위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는 전통적인 사회정치참여인 선거참여의향과 긍정적으로 상관되어 있다는 점이다(<그림 3> 참조). 참고로 전 세계 청소년의 성인기의 선거참여의향은 평균은 3.16이며, 한국 청소년은 그보다 낮은 평균 이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38개국 청소년의 선거참여의향과 다문화 수용적 태도에 따른 산점도

국제 수준에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와 합법적 방식의 저항적 참여의향 간에는 정적 선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38개국에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양 변인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 값은 .458이었다($p=.001$). 국가단위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는 저항적 참여의향과 긍정적으로 상관되어 있다는 점이다(<그림 4> 참조). 특히할만한 사항은 한국 청소년의 저항적 참여의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국가단위의 분석에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성인기의 선거참여의향, 저항적 참여의향) 수준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한국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태도가 38개국 중에서 21위로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림 4> 38개국 청소년의 저항적 참여의향과 다문화 수용적 태도에 따른 산점도

2. 한국 청소년 대상의 분석

1) 한국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한국의 중학교 2학년 재학 중 청소년들의 표본(N=5,254)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았다. 남학생 2,968명(56.5%), 여학생 2,275명(43.3%)으로 남자가 다소 많았다. 연령별로는 만14세가 3,782명(72.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세(1,439명, 27.4%), 13세(33명, 0.6%)의 순서였다. 기대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3,79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의 75.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전문대학 졸업(809명, 15.4%), 고등학교 졸업(388명, 7.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부친의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2,213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2,024명(38.5%), 전문대학 졸업이 595명(11.3%) 등의 순서였다. 모친의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2,957명(56.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1,482명(28.2%), 전문대학 졸업이 422명(8.0%) 등의 순서였다. 집안에 소장하고 있는 서적의 권수로 보면, 26-100권 소장이 1,589명(30.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1-200권 소장이 1,204명(22.9%), 201-500권 소장이 1,122명(21.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5> 한국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 수	구 분	명 (%)	변 수	구 분	명 (%)
성별	남학생	2,968 (56.5)	연령	13세	33 (.6)
	여학생	2,275 (43.3)		14세	3,782 (72.0)
	무응답	11 (.2)		15세	1,439 (27.4)
		무응답		17 (.3)	
기대 교육수준	중학교 중퇴	8 (.2)	부친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퇴	24 (.5)
	중학교 졸업	40 (.8)		초등학교 졸업	89 (1.7)
	고등학교 졸업	388 (7.4)		중학교 졸업	236 (4.5)
	전문대학 졸업	809 (15.4)		고등학교 졸업	2,213 (42.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3,794 (75.6)		전문대학 졸업	595 (11.3)
	무응답	35 (.7)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2,024 (38.5)
		무응답	73 (1.4)		
모친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퇴	29 (.6)	가정 내 소장서적 권수	0-10권	284 (5.4)
	초등학교 졸업	85 (1.6)		11-25권	565 (10.8)
	중학교 졸업	239 (4.5)		26-100권	1,589 (30.2)
	고등학교 졸업	2,957 (56.3)		101-200권	1,204 (22.9)
	전문대학 졸업	422 (8.0)		201-500권	1,122 (21.4)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482 (28.2)		501권 이상	485 (9.2)
무응답	40 (.8)	무응답		5 (.1)	
합계		5,254 (100)			

2)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가족요인 간의 관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인을 투입하고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를 예측하는 요인을 알아보았으며, 특히 주요 독립변인인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가족요인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가정요인을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았다. 통제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만을 투입하여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에의 영향 여부를 살펴보았다.

<표 6>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에의 영향 요인: 다중회귀분석

	모형1			모형2		
	B	SE	Beta	B	SE	Beta
인구통계학적 변인						
나이	-.007	.022	-.004	-.018	.022	-.011
성별	.083	.014	.081***	.067	.014	.066***
소장도서 권수	.032	.006	.084***	.014	.006	.035*
기대교육수준	.089	.011	.115***	.058	.011	.075***
아버지 학력	.012	.008	.026	.008	.008	.017
어머니 학력	-.007	.009	-.015	-.006	.008	-.012
사회적 자본						
선거참여의향				.153	.011	.210***
저항적 참여의향				.027	.012	.033*
가족요인						
아버지의 가정생활				-.025	.014	-.025†
어머니의 가정생활				.038	.017	.032*
국내 이슈 대화				.003	.009	.005
국제이슈 대화				.028	.009	.051**
constant	2.714	.332		2.462	.323	
F (df)	30.452***(6)			41.855***(7)		
R2 (adjusted R2)	.035(.034)			.090(.088)		

Note: †p<.10 *p<.05 **p<.01 ***p<.001

위의 결과를 연구가설 검증과 관련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 방식의 참여인 선거참여의향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210$; $p<.001$), 저항적 방식의 참여의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3$; $p=.021$). 이로써 연구문제 3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아버지가 가정생활에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 청소년 자녀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는 낮아지는 반면($\beta=-.025$; $p=.082$),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와 함께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청소년 자녀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를 향상시켰다($\beta=.032$; $p=.024$). 아버지의 가정생활의 영향력은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었

지만, 부모의 가정생활 할애는 청소년 자녀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 배양에 상반된 효과를 미쳤다고 볼 수 있었다. 이로써 연구문제 4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 국내의 사회정치적 이슈에 관한 대화를 나눌 경우, 청소년 자녀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었다($\beta=.005$; $p=.779$). 반면,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 해외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국제 이슈에 관한 대화를 나눌 경우, 청소년 자녀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1$; $p=.002$). 이처럼 가족 내의 소통의 주제가 국제적 이슈인 경우, 국내 이슈인 경우와 달리,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의 향상을 가져왔다. 이로써 연구문제 5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첨언하면, Model 2의 통제변수 중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소장도서, 기대교육수준의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즉 남성보다 여성일수록($\beta=.066$; $p<.001$), 소장도서 권수가 많을수록($\beta=.035$; $p=.020$), 그리고 청소년의 기대교육 수준이 높을수록($\beta=.075$; $p<.001$),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 청소년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다문화수용성을 증진하거나 저해하는 주요 영향요인이 무엇이며, 이렇게 밝혀진 영향요인에 대해 중재할 수 있는 공공정책은 어떠한지, 어떤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하는지를 탐색적으로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에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성인기의 선거 및 저항적 사회정치 참여의향)과 가족내부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국제적 이슈에 관한 부모와의 대화 빈도가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위기를 청소년 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회통합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함에 있어 청소년과 가정을 위하여 어떠한 중재변인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근거 지식(evidence)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문화사회 초기의 동화정책이 사회의 희소한 가치의 배분구조를 변경하는 적극적인 다문화주의적 사회통합 정책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내국인들의 다문화수용성은 취약해진다(원숙연, 2011). 사회적 자본이 다문화수용성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러한 전환의 상황에서 사회적 자본 내용을 진작시키는 공공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을 진작시킬 수 있을까? 청소년기에 학교안팎에서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투표 등 학내 의사결정, 다양한 토의와 토론, 임원 입후보와 선거운동 과정 참여, 다양한 공식적 방과 후 활동 등에서의 참여 등과 같은 학교 안에서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인권단체 등 자발적 결사체와 옹호집단에서의 참여 등과 같은 학교 밖의 참여를 권장하고 미래의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포용성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아울

러 청소년의 학교 안과 학교 밖의 공식적 참여경험을 통하지 않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다소 비공식적 사교 역시 사회적 응집력과 관용의 기본적인 원천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청소년의 삶에서 이를 강화시켜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요인인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 더불어 가정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행위, 그리고 부모가 자녀와 더불어 국내 정치사회적 이슈나 국제 이슈에 대한 대화를 하는 소통적 행위들이 일단의 학자들에 의하여 ‘가족내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within the family)의 지표(Coleman, 1988)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것처럼 다문화 수용적 태도 증진을 위하여 아버지 역할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국내 정치사회 이슈보다 해외의 이슈에 관한 부모와의 대화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청소년이 국제비교를 통해 취약한 것으로 밝혀진 다문화 수용적 태도의 개선과 신장을 위하여 가정 내에서 부모와의 소통을 통한 다문화교육, 특히 모성의 영향 하에서의 양육이 긴요한 상황이며 일정한 효과를 제공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이 국제비교 결과 낮은 다문화 수용적 태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가족지원 정책적 접근을 강조할 수 있겠다.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민교육 접근법을 취함에 있어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기회나 관련 가정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혜자에게 보다 특화하여 교육프로그램이 전달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들을 공생의 대상으로 인정한다기보다는 일방적 지원정책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⁴⁾ 한국 다문화 정책의 추진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확립. 둘째, 취업대책 및 자녀교육을 통해 자립능력 증진. 셋째,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확대와 서비스 사각지대의 최소화이다(이혜승, 2010). 이처럼 큰 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이나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들도 일부 추진되고는 있지만, 주요 정책목표 및 기조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다. 더욱이 미래시민인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개선과 태도 육성을 위한 접근은 극히 미미한 편이다. 2011년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와 국무총리실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 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등 5개 영역에서 6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한 바 있다.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61개 세부사업 가운데 9개만이 주류집

4) 한국의 다문화 관련 법제와 정책으로는 기본적인 인권정책으로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차별금지법권고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외국인정책기본방향」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기초로 한 외국인 정책, 이주노동자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방문취업제」,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으로 하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기본방향」,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있다.

단의 다문화수용성 증진에 관련된 정책·사업일 뿐이며, 예산 규모 역시 전체 예산의 7.4% 수준에 그치고 있다(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 2011).

2006년 정부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한 이후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등이 속속 발표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가속도가 붙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이주관련 정책은 외형상 본격적인 다문화정책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한국적 맥락에서의 치열한 이론적 논쟁, 사회적 논의, 경험적 검증을 통해 모색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정책적 요구와 문제에 대응하여 수립된 측면이 크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부주도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적 성격을 바탕으로 외국인과 이주민을 주된 정책의 대상, 수혜자집단으로 여겨왔다. 그러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진행되며 생활세계에서 인종적·문화적 차이를 가진 이주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살아가게 될 내국인인 시민들의 의식변화나 문화적 개방성 증진과 관련된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주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정책은 일방향적 다문화정책으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다양한 사회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향후 다문화정책은 이주민과 일반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다른 문화 간의 상호적인 이해증진을 바탕으로 하는 쌍방향적인 사회통합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문화로 인한 사회갈등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래의 성숙한 시민을 겨냥하는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수용적 태도를 증진하는 공공정책이 다문화 사회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형성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극좌정당과 극우정당의 세력 확대와 인종폭동과 같은 다문화 위기, 혹은 다문화 사회의 통합위기를 경험하는 나라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엄한진, 2007; 정세은, 2011; 한승준, 2008). 우리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나 국가가 적어도 특정 역사의 국면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소위 다문화(주의)의 위기(crisis of multiculturalism)를 실토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미 다문화 위기는 실용주의적 견지에서이든 비판적 입장에서든 많은 나라에서 학문적인 화두가 되어 버렸다(Bredström, 2009; Hervik, 2012; Kundnani, 2012; Stehle, 2012; 천선영, 2004). 한국 역시 다문화주의로 나아가는 길은 험난할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서구가 경험하는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위기와 유사하거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소 상이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미래의 주역인 한국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가 국가 비교를 통하여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우려하고 이러한 태도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거니와, 향후 위기관리정책과 실무에 종사하는 실천가들과 학자들은 한국사회에 잠재해 있는 다문화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예방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대현. 2009. 시민교육과 학교 개혁: 시민교육과 학교 개혁. 사회과교육. 48(2): 79-93.
- 곽정래·이준웅. 2009.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탈북자 문제에 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 연구. 한국 언론학보. 53(6): 196-217.
- 김경학. 2010. 퀘백 '상호문화주의'의 문화적 다양성 관리의 한계: 시크 '키르판' 착용 논쟁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0(3): 473-504.
- 김금미. 2010. 대학생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259-283.
- 김기홍. 2012. 사회자본을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농촌사회. 22(1): 89-131.
- 김이선·황정미·이진영. 2007.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인영·박관영·이인희. 2009. TV 프로그램에 나타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특수성에 관한 미디어 담론: KBS <러브 인 아시아>와 <미녀들의 수다>를 중심으로. OUGHTOPIA. 24(2): 69-95.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 36-71.
- 민무숙·안상수·김이선·김금미·조영기·류정아. 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 연구.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 민영, 노성종. 2011.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정치의식, 그리고 정치참여. 한국언론학보. 55(4): 284-308.
- 박주희·정진경. 2008.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21.
- 박혜숙·원미순. 2010.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4(2): 303-325.
- 송미영. 2009. 한국의 다문화의식: 다문화 수용성의 원인 분석. 민족연구. 41: 74-196.
- 양문승·윤경희. 2010.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가정 정책 추진 성과 및 문제점: 경찰활동 관점에서의 평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1: 239-269.
- 엄한진. 2007. 프랑스 이민통합 모델의 위기와 이민문제의 정치화: 2005년 '프랑스 도시외곽지역 소요 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3): 253-286.
- 여성가족부·관계부처. 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1년도 시행계획(안). 여성가족부·관계부처.
- 염운옥. 2011. 영국 다문화주의의 위기와 모색. 철학과 현실. 91: 32-43.
- 오경석 외.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 원숙연. 2011. 인종적 소수자 정책에 대한 수용성의 영향요인: 적극적 조치와 불법이민자 정책에 대한

- 미국인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4): 327-351.
- 유의정 · 조규범 · 조주은. 2010.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 윤석상. 2011.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 사회구축. 글로벌교육연구. 3(1): 95-114.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7): 72-103.
- 윤인진 · 송영호. 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사회학회 논문자료집. 579-591.
- 이태주 · 권숙인.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호주와 일본의 사례.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혜승. 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보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5-216.
- 임도경 · 김창숙. 2011.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정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1): 5-34.
- 장입숙. 2011. 이주민소주자 정책의 정향과 정체성: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1): 145-166.
- 정세은. 2011. 프랑스 사회통합의 위기와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정책 평가. 국제지역연구. 15(1): 3-30.
- 천선영. 2004. '다문화사회'담론의 한계와 역설. 한·독사회과학논총. 14(2): 363-380.
- 최종덕. 2007.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 시민교육연구. 39(4): 135-161.
- 최진우. 2012. 유럽 다문화사회의 위기와 유럽통합. 아시아리뷰. 2(1): 31-62.
- 최훈석 · 양예경 · 이선주. 2008.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안산과 영암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39-69.
- 한건수. 2008. 다문화사회의 이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한승준. 2008. 프랑스 동화주의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3): 463-486.
- 한승준. 2011. 외국인 정책의 사회적 형성에 관한 연구: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1): 51-82.
- 황정미 · 김이선 · 이명진 · 최현 · 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llport, G. W. 1979. *The Nature of Prejudice*. New York: Addison-Wesley.
- Bassani, C. 2006. A Test of Social Capital Theory Outside of the American Context: Family and School Social Capital and Youth's Main Scores in Canad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5(6): 380-403.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Bhawuk, D. P. and R. Brislin. 1992. The Measuremen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Using the Concep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6(4): 413-436.

- Bogard, C. J., I. Steinheit, and R. P. Clarke. 2008. Information They Can Trust: Increasing Youth Voter Turnout at th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41(3): 541-546.
- Bredström, A. 2009. Sweden: HIV/AIDS Policy and the 'Crisis' of Multiculturalism. *Race & Class*. 50(4): 57-74.
- Chen, G. M. and Starosta, W. J. 1997. A Review of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Human Communication*. 1: 1-16.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Crosnoe, R. 2004. Social Capital and the Interplay of Families and School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267-280.
- De Cannière, M. H., P. De Pelsmacker, and M. Geuens. 2009.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al Intentions and Purchase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2(1): 82-92.
- Espenshade, T and K. Hempsted. 1996. Contemporary American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International Immigration Review*. 30(2): 535-570.
- Garcia, M. H. 1995.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Multicultural Diversity Training.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1(4): 490-504.
- Gesten, E. L. and R. P. Weissberg. 1986. Social Problem-Solving Training with Children: A Guide to Effective Practice. *Special Services in the Schools*. 2(4): 19-39.
- Hervik, P. 2012. Ending Tolerance as a Solution to Incompatibility: The Danish 'Crisis of Multiculturalism'.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5(2): 211-225.
- Hood, M. and I. Morris. 2000. Brother, Can You Spare a Dime? Racial/Ethnic Context and the Anglo Vote on Proposition 187. *Social Science Quarterly*. 81(1): 194-206.
- Hunter, L. and M. J. Elias. 2000. Interracial Friendships,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Social Competence: How are They Relate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4): 551-573.
- Israel, G. D., L. J. Beaulieu, and G. Hartless. 2001. The Influence of Family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on Educational Achievement. *Rural Sociology*. 66(1): 43-68.
- Kovacheva, S. 2005. The Role of Family Social Capital in Young People's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in Bulgaria. *Sociologija*. 46(3): 211-226.
- Kundnani, A. 2012. The Crises of Multiculturalism: Racism in a Neoliberal Age. *Race & Class*. 54(1): 113-116.

-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onard, M. 2005. Children, Childhood and Social Capital: Exploring the Links. *Sociology*. 39(4): 605-622.
-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 65-85.
- Pantoja, A. 2006. Against the Tide? Core American Values and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Policy in the Mid-1990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2(3): 513-531.
- Pantoja, A., et. al. 2001. Citizens by Choice, Voters by Necessity: Patterns in Political Mobilization by Naturalized Latino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4(4): 729-750.
- Pichler, F., and C. Wallace. 2007. Pattern of Formal and Informal Social Capital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2): 423-434.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24.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new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avanera, Z. R., and F. Rajulton. 2010. Measuring Social Capital and Its Differentials by Family Struct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5(1): 63-89.
- Sandefur, G., A. Meier, and P. Hernandez. 1999. *Families, Social Capital and Educational Continuation*.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Working Paper, no. 99-19.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University of Wisconsin.
- Schulz, W., J. Ainley, J. Fraillon, D. Kerr, and B. Losito. 2010.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Thirty-Eight Countries*.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Stehle, M. 2012. White Ghettos: The 'Crisis of Multiculturalism' in Post-unification Germany.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5(2): 167-181.
- Takhar, S. 2006. South Asian Women, Social Capital and Multicultural (Mis)Understandings. *Community, Work and Family*. 9(3): 291-307.
- Taylor, C. 1994.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G. Amy. eds.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5-74.
- Turchik, J. A., and C. A. Gidycz. 2012. Exploring the Intention-behavior Relationship in the Prediction of Sexual Risk Behaviors: Can It Be Strengthened? *Journal of Sex Research*. 49(1): 50-60.
- Young, I. M.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金俊弘: 고려대학교에서 미디어이론을,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책학을 연구하고, 언론학 박사과 행정학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하였다. 청소년의 위기·위험에 관한 연구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다(kjh@nypi.re.kr).

투 고 일: 2012년 11월 22일

수 정 일: 2012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20일

[부록] 주요변인의 38개 국가별 신뢰도계수

순서	ICCS(2009) 참여국가	선거참여의향	저항적 참여의향	다문화 수용적 태도
1	Austria	.767	.753	.822
2	Bulgaria	.834	.785	.756
3	Chile	.902	.794	.738
4	Chinese Taipei	.855	.820	.836
5	Colombia	.781	.731	.727
6	Cyprus	.791	.785	.793
7	Czech Republic	.865	.800	.757
8	Denmark	.789	.776	.815
9	Dominican Republic	.722	.757	.613
10	Estonia	.811	.744	.772
11	Finland	.828	.819	.853
12	Greece	.792	.704	.769
13	Guatemala	.725	.754	.723
14	HongKong	.890	.817	.839
15	Indonesia	.694	.732	.484
16	Ireland	.838	.818	.822
17	Italy	.815	.746	.793
18	Korea	.798	.855	.772
19	Latvia	.809	.745	.487
20	Liechtenstein	.779	.757	.837
21	Lithuania	.797	.776	.738
22	Luxembourg	.832	.792	.821
23	Malta	.703	.770	.777
24	Mexico	.772	.766	.764
25	Netherlands	.835	.797	.769
26	Newzealand	.823	.844	.834
27	Norway	.869	.829	.849
28	Paraguay	.732	.759	.667
29	Poland	.799	.811	.761
30	Russian Federation	.819	.766	.772
31	Slovak Republic	.835	.790	.734
32	Slovenia	.831	.782	.797
33	Spain	.830	.760	.809
34	Sweden	.857	.822	.889
35	Switzerland	.859	.765	.821
36	Thailand	.817	.824	.678
37	England	.868	.833	.868
38	Belgium(Flemish)	.777	.788	.768